

코스모스 한들한들

심은 기억은 없는데 사택 앞에는 여름부터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. 그래도 역시 가을 코스모스가 제격입니다. 아버님이 좋아하셨다던 코스모스, 그래서 아버지 꽃 같습니다.

“목사님, 집에만 있으니 너무 우울해요” 집에서 키운 고추를 전해 주시며 속마음을 비추시는 성도님의 한 말씀입니다. 그 분의 답답한 마음과 일상이 여운으로 남습니다. 다음 주일부터 현장예배를 7시부터 드립니다. 코비드 이전처럼 세 번의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. 물론 최대 50 명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기분이 듭니다. 교회에 들르세요.

그동안 라이브로 드렸던 온라인 새벽기도, 9 월 14 일 월요일부터 현장새벽기도회를 재개합니다. 주일처럼 매주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9 월 9 일(수)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성도님의 QR Code 를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. 그러면 새벽에 본인 스스로 체크인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.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13 일 주일 현장예배에 참석하신 후, 예배위원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 최대한 주일처럼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. 체온 확인, 마스크, 거리두기, 한 줄에 최대 두 분씩 앉으시면 별 탈이 없을 거예요.

여섯 달째, 한 번도 뵈지 못한 성도님들이 태반입니다. 현장예배에서 뵈는 성도님들의 얼굴은 그나마 반쪽입니다. 아쉽지요. 교회당에서 성도님들을 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, 요즘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. 몇 달 전, 어느 장로님이 고급 우산을 기증하셨습니다. 다음 주일부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어려운 시절에 그 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로 위로가 되시면 좋겠네요. 9 월 중에 전반기 제직회를 하려고 합니다. 어려운 때에도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제직들께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지내온 것, 주의 은혜입니다. 샬롬!

2020. 8.30. 임철성 목사 올림